http://dx.doi.org/10.14400/JDC.2016.14.1.229

일부 종합병원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 및 그의 관련요인

신은숙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edical Recorders engaged in General Hospitals

Eun-Sook Shin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Joongb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의무기록사들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그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 428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월수입이 낮을수록, BMI가 낮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의 전환의사가 있다는 군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의무기록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의무기록사들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변수들이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종합병원, 의무기록사, 직업전문성 인식도, 인구사회학적특성, 직업관련특성.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he purpose of elucidat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of the medical recorder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The study subjects were 428 medical recorders working at general hospitals.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andardiz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September 1 to 30, 2015. As a results, the professional job perceptions of the subject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group of lower age, lower educational level, the unmarried group than the married group, lower monthly income, lower BMI, lower job position, dissatisfaction in work, unfit to the job, considering quit the job, irregular exercise, irregular eating breakfast, lower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medical recorders, lower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and lower future status of medical recorders. In particular,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job related characteristics is highly correlated with th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In conclusion, it suggested that the professional job perception of medical recorder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job related characteristics.

Key Words : General hospital. Medical recorder, Professional job percepti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related characteristic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ceived 30 November 2015, Revised 30 December 2015
Accepted 20 January 2016
Corresponding Author : Eun-Sook Shin(Joongbu University)
Email: tjdrhd@joongb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오늘날 병원은 급격한 의료변화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의료분쟁 수의 증가,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하여 병원 근무자들에게 많은 양의 업무 부담을 시키고 있다[1,2,3,4]. 이 같은 병원 환경은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어 병원 종사자들은 다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직업 전문성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되어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5,6,7,8,9,10].

또한 최근 병원들은 업무의 전산화를 비롯하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어 병원 종사자들은 전문직의 특성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화된 기술과 훈련, 숙련된 서비스나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특히 병원현장에 일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는 환자의 질병과 관련되는 정보와 병원이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법적 문서인 의무기록과 연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성을 갖는 직업으로 볼 수 있다[4,11].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사의 주요 업무로는 전자의무기록 서식개발 및 자료보관체계 등 의료정보관리체계 관련개발에 참여하여 질병분류 및 의료행위 분류, 암등록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화하고, 의무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 질관리, 국내 및 국제 의료기관 평가시 항목별 평가준비와 진료실적 지표관리를 통해 병원경영에도 기여하여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에 대하여 인정 받고 있다[11]. 따라서 의무기록사는 의무기록정보 업무에 연관된 전문화된 지식을 갖추어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및 행정직 등 여러 직종의 종사자들과 협력하며 병원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전문성은 체계적인 기술 및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차별화된 직업조직도, 직업윤리강령 및 직업 전문화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 지향적인 직업으로 고차원적인 직업적 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의미한다[12]. 이리하여 전문직은 구성원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직업으로써, 사회적 위치나 권력 , 수입등으로 평가되는 직업지위가 높은 직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13]. 따라서 직업의 전문성을 이해하려면 그 직업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객관화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14].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의무기록사들에 관해서도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식정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직업전문성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개원의사[15,16], 간호사[17,18,19], 미용사[20-23], 보육교사[24], 생활체육지도사[25] 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 의무기록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1,11].

이에 본 연구는 의무기록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관련 특성별, 건강관련행위 특성별 및 지위인식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도 수준을 알아보고,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인천,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60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 유의수준 0.05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452명이었으며 탈락율을 고려하여 512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46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받았으며, 그 중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37명을 제외한 428명(유효율 83.6%)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본인기입식 질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미리 지도받은 조사원들이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설문에 참여 동의를 얻은 후 질문지를 배포한 다음 연구내용 및 기입요령을 설명하고 업무시간 외에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질문지의 구성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을 나타내는 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월수입, 체중 및 신장을 조사하였다. 체중과 신장은 최근 건강검진 등에 의해 결과 값을 기록토록 하였으며, 비만도(body mass index;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눈 Quetelet지수 〔BMI(㎏/㎡)=체중(㎏)/신장(㎡)〕로 산정하였다. 직업관련별 특성으로는 근무경력, 직위, 업무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 신체적 부담정도, 직업전환의사 업무에 대한 적성 등을 조사하였다. 건강관련행위 특성별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흡연상태, 음주상태, 아침식사여부,규칙적인 운동여부, 여가활동시간, 주관적인 수면의 질, 주관적인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규칙적 운동 여부는 1주일에 3회 이상, 회 당 30분 이상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운동군」,운동을 하는 사람을「운동군」으로, 으로 구분하였다.

지위 인식정도의 측정은 Pavalko[27]의 전문직업에 대한 사회 인식을 기반으로 Kim 등[28]이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전문직업의 사회적 위치 범위의 문항을 사용하여 의무기록사의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위치 비전을 조사하였다. 본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의무기록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편이다」,「보통이다」, 「높은 편이다」로 구분하였고, 의무기록사의 사회적 위치 비전에 대해서는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낮아질 것이다」,「같을 것이다」,「좋아질 것이다」로 분류하였다.

직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은 Hall[29]이 40개 문항을 제시하고 Snizek[30]가 25개의 문항으로 줄인 전문직업성의 측정도구(Hall's Professionalism Scale)가 Kang 등[31]이 우리나라의 근무환경에 맞게 변경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인 중요성; 의무기록사직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라고 여기는 것」,「전문조직의 준거성;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직 및 동료들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 「직업적인 소명감; 자신의 직무를 천직으로 여기고 보상이 줄더라도 의무기록사직업을 계속하겠다는 느낌」「업무의 자율성;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자율적인 상호통제; 동료 직원들만이 서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는 자체 규제에 대한 신념」, 등 5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요인별로 5개 문항을 주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방향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합하여계산한 득점 범위는 25~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 전체적 문항 내적 신뢰도로 의미하는 Cronbach's 알파 값은 0.802이었고, 하위 영역별로는 전문조직 준거성 영역 α=0.743, 사회적인 중요성의 영역은 α=0.825, 자율적 상호통제 영역 α=0.865, 직업적인 소명감의 영역은 α=0.822, 업무자율성 영역 α=0.784로 충분히 안정된 척도로 생각되었다.

2.3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한 자료를 전산입력 후 SPSS WIN(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를 분석했다. 단변량의 분석은 직업 관련적인 특성,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 건강관련 행위의 특성 및 지위인식정도에 의한 직업전문적인 인식도의 평균점수의 비교에는 t-test, ANOVA로 검정하였다. 또한 직업전문성 인식도를 종속변수 ,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직업관련한 특성, 건강관련행위의 특성 및 지위 인식정도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정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결과 통계량의 유의수준을 $p<0.05$ 로 했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별로 직업전문성의 인식도는 <Table 1>과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총평균의 점수가 연령이 낮을수록(p=0.033), 학력이 낮을수록(p=0.011),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00),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0), BMI가 낮을수록(p=0.023)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전문조직 준거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연령이 낮을수록(p=0.019), 학력이 낮을수록(p=0.000),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11),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1), BMI가 낮을수록(p=0.002) 유의하게 낮았다.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12), 자율적 상호통제

〈Table 1〉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A felling of autonom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Sex							
Male	122(28.5)	77.52±11.19	14.35±3.08	15.95±5.04	15.75±2.77	15.54±3.18	15.92±3.35
Female	306(71.5)	79.53±10.17	14.72±2.49	16.26±2.35	16.14±2.99	15.80±2.94	16.61±3.26
p-value		*0.073*	*0.243*	*0.520*	*0.201*	*0.416*	*0.051*
Age(year)							
≦29	139(32.5)	78.21±10.72	14.37±2.41	16.19±4.19	15.82±2.80	15.48±3.03	16.26±3.33
30-39	198(46.3)	78.35±10.42	14.46±2.83	15.95±2.11	16.16±2.53	15.65±2.72	16.22±3.23
40≦	91(21.3)	81.51±11.28	15.31±2.60	16.47±2.75	16.31±3.33	16.38±3.30	17.03±3.29
p-value		*0.033*	*0.019*	*0.509*	*0.349*	*0.057*	*0.128*
Education							
Junior college	131(30.6)	78.33±10.42	14.36±2.54	16.13±2.34	16.10±2.81	15.51±3.07	16.23±3.19
College	242(56.5)	78.40±10.36	14.40±2.56	16.09±3.89	15.85±2.99	15.68±2.92	16.38±3.23
Graduate school	55(12.9)	82.91±10.65	16.15±2.99	16.64±2.67	16.67±2.91	16.47±3.17	16.93±3.79
p-value		*0.011*	*0.000*	*0.540*	*0.165*	*0.128*	*0.357*
Marital status							
Married	216(50.5)	80.70±11.21	15.94±2.88	16.57±4.13	16.26±3.02	16.06±3.15	16.87±3.43
Unmarried	212(49.5)	77.18±9.42	14.28±2.40	15.76±2.20	15.80±2.82	15.40±2.82	15.94±3.09
p-value		*0.000*	*0.011*	*0.012*	*0.100*	*0.023*	*0.004*
Monthly income(₩10.000)							
〈200	96(22.4)	76.02±10.90	13.98±2.40	15.93±1.83	15.70±2.47	15.23±2.25	15.19±2.55
200~300	254(59.3)	78.52±10.84	14.57±2.78	16.08±3.89	15.86±3.02	15.60±3.17	16.41±3.35
300≦	78(18.2)	84.01±11.35	15.54±2.40	16.76±2.74	17.01±3.01	16.77±3.07	17.94±3.34
p-value		*0.000*	*0.001*	*0.215*	*0.004*	*0.002*	*0.000*
BMI(㎏/㎡)							
≦18.5	86(20.1)	76.47±10.24	13.91±1.96	16.00±1.80	15.81±2.26	15.30±2.37	15.44±1.72
18.5-22.9	239(55.8)	77.04±10.67	13.85±3.63	17.15±7.32	15.40±2.00	15.50±2.66	15.15±2.81
23.0-24.9	55(12.9)	79.89±10.91	14.92±2.65	16.13±2.48	16.10±3.16	15.88±3.12	16.85±3.50
25.0≦	48(11.2)	80.47±12.95	15.04±2.44	15.75±2.87	16.62±3.41	15.93±3.62	17.15±3.98
p-value		*0.023*	*0.002*	*0.156*	*0.167*	*0.414*	*0.000*
Total	428(100.0)	78.96±10.50	14.61±2.67	16.17±3.34	16.03±2.93	15.73±3.01	16.41±3.29

에 대한 평균 점수는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11),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1)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적 소명감에 대한 평균 점수는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p=0.023),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2) 유의하게 낮았으며, 업무자율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04),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0), BMI가 낮을수록(p=0.000) 유의하게 낮았다.

3.2 직업관련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Table 2>와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 총 평균점수는 직위가 낮을수록(p=0.000),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가 적성 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전문조직 준거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직위가 낮을수록(p=0.000), 근무경력이 짧을수록(p=0.000), 업무의 신체적 부담 정도가 적당하다는 군보다 힘들다는 군에서(p=0.033),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5),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p=0.000),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44),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자율적 상호통제, 직업적 소명감 및 업무자율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직위가 낮을수록(p=0.000),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Table 2〉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ccording to job related factors

Variables	N(%)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A felling of autonom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Job position							
Staff	287(67.1)	76.99±8.91	14.31±2.41	16.03±3.59	15.65±2.62	15.32±2.81	15.67±2.76
Charge	89(20.8)	80.93±13.06	14.79±3.38	16.16±2.83	16.45±3.27	16.16±3.33	17.38±3.97
Head	52(12.1)	86.44±9.88	15.98±2.22	16.94±2.53	17.42±3.44	17.25±2.94	18.85±3.16
p-value		*0.000*	*0.000*	*0.198*	*0.000*	*0.000*	*0.000*
Job career(year)							
<1	28(6.5)	76.93±8.26	13.50±2.61	15.93±1.58	15.86±2.27	15.07±2.03	16.57±3.17
2-3	121(28.3)	77.85±9.59	14.18±2.61	15.93±2.21	16.24±2.85	15.64±2.93	15.85±3.16
4-9	144(33.6)	78.49±11.30	14.47±2.37	15.92±2.33	16.00±3.13	15.55±3.04	16.56±3.56
10≦	135(31.5)	80.87±10.63	15.39±2.86	16.70±4.95	15.92±2.92	16.13±3.19	16.73±3.11
p-value		*0.066*	*0.000*	*0.171*	*0.821*	*0.224*	*0.168*
Physical burden of work							
Adequate	225(52.6)	79.39±10.95	14.88±2.89	16.24±4.03	16.14±2.99	15.51±3.16	16.63±3.48
Hard	203(47.4)	78.48±9.98	14.33±2.37	16.09±2.36	15.92±2.87	15.98±2.82	16.17±3.06
p-value		*0.375*	*0.033*	*0.643*	*0.436*	*0.108*	*0.152*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	273(63.8)	81.82±11.08	14.73±2.63	16.61±2.36	16.70±3.19	16.65±2.81	17.14±3.68
Dissatisfaction	155(36.2)	73.91±6.98	14.42±2.73	15.40±4.49	14.86±1.91	14.10±2.65	15.12±1.90
p-value		*0.000*	*0.256*	*0.000*	*0.000*	*0.000*	*0.000*
Fit to the job							
Fit	310(72.4)	81.08±10.95	14.84±2.69	16.37±2.34	16.47±3.20	16.38±2.88	17.02±3.58
Unfit	118(27.6)	73.37±6.51	14.03±2.55	15.64±5.08	14.88±1.57	14.02±2.66	14.81±1.44
p-value		*0.000*	*0.005*	*0.044*	*0.000*	*0.000*	*0.000*
Consider quitting the job							
With	197(46.0)	73.04±6.88	13.95±2.64	15.36±4.16	14.74±2.11	14.38±2.43	14.61±1.91
Without	231(54.0)	84.00±10.43	15.18±2.57	16.86±2.22	17.13±3.08	16.88±2.98	17.94±3.45
p-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Total	428(100.0)	78.96±10.50	14.61±2.67	16.17±3.34	16.03±2.93	15.73±3.01	16.41±3.29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3.3 건강관련 행위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조사대상자들의 건강관련행위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는 <Table 3>과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 총 평균 점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13),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40)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영역별에서의 자율적 상호통제에 대한 평균 점수는 음주를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27),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p=0.009)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28)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적 소명감에 대한 평균 점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25),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4) 유의하게 낮았으며, 업무 자율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1) 유의하게 낮았다. 그러나 전문조직 준거성과 사회적 중요성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4 지위인식정도별 직업전문성 인식도

조사 대상자들의 지위인식 정도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Table 4>와 같다. 직업전문성 인식도 총 평균 점수는 의무기록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p=0.000), 응답자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p=0.000),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p=0.000) 유의하게 낮았다. 하위 영역별에서도 전문조직 준거성, 사회적 중요성,

〈Table 3〉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ccording to health related factors

Variables	N(%)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A felling of autonom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Alcohol drinking							
Yes	277(64.7)	79.42±10.97	14.60±2.81	16.32±3.66	16.26±3.00	15.78±3.08	16.47±3.56
No	151(35.3)	78.11±9.55	14.65±2.41	15.89±2.64	15.61±2.75	15.64±2.87	16.31±2.76
p-value		*0.197*	*0.844*	*0.207*	*0.027*	*0.661*	*0.619*
Smoking							
Yes	78(18.2)	78.59±11.98	14.49±3.10	16.47±6.03	15.81±2.98	15.79±3.54	16.03±3.62
No	350(81.8)	79.04±10.16	14.64±2.57	16.10±2.37	16.08±2.92	15.71±2.88	16.50±3.22
p-value		*0.759*	*0.681*	*0.595*	*0.455*	*0.852*	*0.254*
Regular exercise							
Yes	149(34.8)	81.05±12.73	14.72±2.99	16.34±2.68	16.59±3.46	16.17±3.17	17.23±3.94
No	279(65.2)	77.84±8.91	14.56±2.48	16.08±3.65	15.73±2.57	15.49±2.89	15.97±2.80
p-value		*0.007*	*0.580*	*0.415*	*0.009*	*0.025*	*0.001*
Eating breakfast							
Regularly	201(47.0)	80.06±10.74	14.83±2.81	16.12±2.53	16.36±2.92	16.17±3.05	16.58±3.49
Irregularly	227(53.0)	77.98±10.20	14.42±2.53	16.22±3.92	15.74±2.91	15.33±2.93	16.26±3.11
p-value		*0.040*	*0.115*	*0.761*	*0.028*	*0.004*	*0.331*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	250(58.4)	79.30±10.83	14.49±2.58	16.27±3.81	16.26±3.03	15.73±3.16	16.56±3.40
Bad	178(41.6)	78.47±10.03	14.79±2.79	16.03±2.55	15.71±2.76	15.73±2.79	16.21±3.14
p-value		*0.414*	*0.262*	*0.447*	*0.058*	*0.994*	*0.282*
Leisure time							
With	235(54.9)	79.20±10.76	14.74±2.80	16.36±3.89	16.11±2.92	15.65±3.15	16.34±3.31
Without	193(45.1)	78.66±10.19	14.46±2.49	15.94±2.50	15.93±2.95	15.83±2.83	16.50±3.28
p-value		*0.597*	*0.261*	*0.184*	*0.523*	*0.534*	*0.604*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338(79.0)	78.77±10.24	14.50±2.69	16.00±2.42	16.03±2.92	15.79±3.01	16.46±3.29
Unhealthy	90(21.0)	79.66±11.47	15.03±2.56	16.82±5.56	16.06±2.98	15.50±2.99	16.24±3.33
p-value		*0.508*	*0.095*	*0.173*	*0.934*	*0.418*	*0.590*
Total	428(100.0)	78.96±10.50	14.61±2.67	16.17±3.34	16.03±2.93	15.73±3.01	16.41±3.29

자율적 상호통제, 직업적 소명감 및 업무 자율성의 모든 영역에서 의무기록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p=0.000),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p=0.000),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p=0.000) 유의하게 낮았다.

3.5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의 모델에 의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5>.

모델 Ⅰ은 인구 사회학적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모델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월수입, BMI가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보다 남자에서, 월수입이 낮을수록, BMI가 낮을수록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낮았으며 이들은 9.7%의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Ⅱ에는 모델Ⅰ에 투입된 변수에 직업관련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및 직업 전환의사가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위가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적성이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 직업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낮았으며 모델 Ⅱ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38.4%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Ⅲ에는 모델Ⅱ의 투입된 변수에 건강관련 행위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음주상태와 흡연상태가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군보다 비음주군에서, 흡연군보다 비흡연군에서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낮았으며 모델 Ⅲ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무만족도를 39.7% 설명할 수 있었다. 모델 Ⅳ에는 모

〈Table 4〉 Mean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ccording to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N(%)	Total score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Belief in public service	Belief in self 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A felling of autonomy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medical recorders							
Low	94(22.0)	73.11±7.08	13.91±3.02	15.67±2.49	14.62±2.25	14.20±2.47	14.70±1.74
Middle	304(71.0)	79.15±9.66	14.76±2.51	16.12±3.60	16.04±2.65	15.81±2.81	16.43±3.16
High	30(7.0)	95.30±9.98	15.33±2.73	18.27±1.83	20.43±3.21	19.70±2.71	21.57±2.94
p-value		*0.000*	*0.008*	*0.001*	*0.000*	*0.000*	*0.000*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Low	93(21.7)	72.49±7.15	13.90±2.95	15.14±2.21	14.43±2.02	14.20±2.44	14.82±1.70
Middle	306(71.5)	79.33±9.77	14.66±2.47	16.28±3.62	16.09±2.77	15.82±2.89	16.48±3.35
High	29(6.8)	95.72±6.42	16.45±2.87	18.34±1.65	20.55±2.11	19.62±2.06	20.76±2.45
p-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uture status of medical recorders							
Better than current status	82(19.2)	87.20±12.16	15.21±3.03	17.66±2.43	17.67±3.80	18.17±3.08	18.49±4.20
Same with current status	205(47.9)	78.77±8.46	14.89±2.52	15.86±2.05	16.13±2.32	15.52±2.71	16.37±2.93
Worse than current status	116(27.1)	74.36±9.50	13.96±2.54	15.93±5.22	14.87±2.82	14.56±2.75	15.04±2.39
No idea	25(5.8)	74.84±8.42	13.44±2.36	14.96±1.51	15.28±1.99	14.88±1.50	16.28±2.63
p-value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Total	428(100.0)	78.96±10.50	14.61±2.67	16.17±3.34	16.03±2.93	15.73±3.01	16.41±3.29

델Ⅲ의 투입된 변수에 지위인식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무기록사의 장래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낮았으며 모델 Ⅳ에 투입된 변수들로 직업전문성 인식도를 40.1% 설명할 수 있었다. 위의 모델에서 보면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추가됨으로 해서 각각 11.0%, 29.2%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고찰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 수준을 알아보고,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전문성 인식도 측정도구는 Hall's Professionalism Scale[29,30]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들을 사용하였으며[31], 설문지 전체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값은 0.802로 충분히 안정된 척도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월수입이 낮을수록, BMI가 낮을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종합병원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32]에서도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 월수입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20]의 연구에서도 근무경력이 낮고,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인식도가 낮다고 하였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Kang[24]의 연구에서도 학력 및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직업관련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Table 5〉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of selected variables on professional job perception

Variables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B	t	B	t	B	t	B	t
Sex(male/female)	5.98	4.18**	2.44	1.98*	5.60	3.41**	5.36	3.22**
Age(year)	-0.25	-1.78	-0.46	-2.89**	-0.44	-2.78**	-0.45	-2.84**
Education (junior/college, graduate)	0.57	0.53	0.40	0.44	0.79	0.87	0.77	0.86
Marital status (unmarried/married)	2.40	1.87	1.54	1.41	1.88	1.71	1.68	1.52
Monthly income(₩)	0.04	4.21**	0.02	2.57*	0.02	2.58*	0.02	2.62**
BMI(㎏/㎡)	0.50	2.47*	0.19	1.16	0.13	0.78	0.13	0.76
Job position (staff/head, charge)			4.37	4.39**	4.18	4.13**	3.96	3.91**
Job career(year)			0.27	1.77	0.24	1.63	0.27	1.83
Physical burden of work (adequate/hard)			-0.23	-0.28	-0.14	-0.17	-0.12	-0.14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dissatisfaction)			-2.18	-1.94	-2.33	-2.08*	-2.32	-2.07*
Fit to the job(fit/unfit)			-2.84	-2.42*	-2.89	-2.46*	-2.50	-2.10*
Consider quitting the job (with/without)			8.84	10.18**	8.82	10.20**	8.56	9.73**
Alcohol drinking(no/yes)					1.77	1.97*	1.66	1.85
Smoking((no/yes)					4.00	2.59*	3.79	2.46*
Regular exercise(yes/no)					-0.68	-0.75	-0.81	-0.89
Eating breakfast (regularly/irregularly)					0.56	0.64	0.38	0.44
Subjective sleep quality (good/bad)					-0.37	-0.43	-0.69	-0.81
Leisure time (with/without)					-0.74	-0.88	-0.87	-1.04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unhealthy)					1.20	1.18	1.02	0.99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oneself (middle, low/high)							-0.89	-0.84
Perception on socioeconomic status of medical recorders (middle, low/high)							1.56	1.42
Future status of medical recorders(worse than /same, better than)							2.10	2.13*
Constant	59.098		74.774		71.333		70.630	
F	8.642**		23.196**		15.774**		14.015**	
R^2 change	0.110**		0.292**		0.022*		0.009	
Adjusted R^2	0.097		0.384		0.397		0.401	

*: $p<0.05$, **: $p<0.01$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근무환경이 좋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인식도가 높아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Shin[32]은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직위가 낮을수록,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직종이 다른 연구에서도 Kang[24]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력이 높아질수록, 보수가 많을수록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높다고 하였고,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20]의 연구에서도 근무경력이 낮고, 월수입이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직종에서도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관련된 직업관련 특성 요인들은 유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건강관련 행위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인 Shin[32]의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는 건강관련 행위특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지위 인식정도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의무기록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응답자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Jin 등[15]은 개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전문 인식도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Shin 등[36]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군에서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Cho[20,21,22,23]의 연구에서도 사회 경제적 지위나 앞으로의 지위전망에 대해 스스로 낮게 인식할수록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인식도는 낮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사를 대상으로 한 Shin[33]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향후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군에서 직업전문성 인식도가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이 낮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조사대상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성,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전환의사, 음주상태, 흡연상태,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추가됨으로 해서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에는 인구 사회학적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Shin[33]의 연구에서도성별, 연령, 결혼상태,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전환의사 및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한편, 직종이 다른 Cho[20]의 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근무경력, 성별,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직무만족도 및 학력이 직업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는 지적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일부 지역의 병원에 근무하는 의무기록사들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 의무기록사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단면조사이기 때문에 각 독립변수들과 직업전문성 인식도간의 관련성 여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독립변수가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무기록사들에 대한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의무기록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행위 특성, 직업관련 특성 및 지위 인식정도 등의 여러 요인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도 수준을 알아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외에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독립변수를 찾아내어 다방면으로 의무기록사의 직업전문성 인식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행위특성, 직업관련 특성 및 지위인식정도에 따른 직업전문성 인식도 수준을 알아보고,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인천, 대구, 광주,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 6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무기록사 4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직업

전문성 인식도는 연령이 낮을수록(p=0.033), 학력이 낮을수록(p=0.011), 기혼군보다 미혼군에서(p=0.000), 월수입이 낮을수록(p=0.000), BMI가 낮을수록(p=0.023) 유의하게 낮았다. 직업관련 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직위가 낮을수록(p=0.000),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군보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가 적성에 맞는다는 군보다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0), 업무의 전환의사가 없다는 군보다 있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관련 행위특성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13),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40) 유의하게 낮았다. 지위인식 정도별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의무기록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p=0.000), 응답자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할수록(p=0.000),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p=0.000) 유의하게 낮았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 월수입, BMI, 직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업 전환의사, 음주상태, 흡연상태, 장래 의무기록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전망에 대한 인식이 직업전문성 인식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0.1%이었다. 이 모델에서 보면 직업전문성 인식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추가됨으로 해서 각각 11.0%, 29.2%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직업전문성 인식도에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전문성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관련 요인들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S. D. Kim.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advanced practice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146-6154, 2013.

[2] M. J. Kwon, K. S. Kim, S. Y. Ahn. Effects of emotional labor,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on self-efficac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2225-2234, 2014.

[3] K. S. Yoon, Effect of career commitment and professionalism of perioperative nurse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2 pp. 7193-7203, 2014.

[4] E. M. Choi, H. J. Lee, O. N. Kim, Y. H. Choi, A study on convergenc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development for medical record specialis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7, pp. 229-238, 2015.

[5] A. S. Park, Y. C. Cho. Analysis of the related factors on job satisfaction in nursing officer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0):4502-4512, 2011.

[6] E. H. Kim, Y. C. Cho. Job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nursing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7):3112-3122, 2012.

[7] E. Y. Yeom, H. O. Jeon. Relations of burnout, interpersonal relation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869-2879, 2013.

[8] C. H. Lee, J. H. Jung. Comparison of professional self-concepts and care perceptions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ee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asic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2 pp. 5826-5838, 2012.

[9] S. H. Hw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therapists' burn-out,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4 pp. 1728-1738, 2012.

[10] M. H. Lee, Convergence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radiograph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357-368, 2015.

[11] S. H. Yun, A study on role charge of medical recorders in the environment of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12] Friedson E. Professional dominance: The Social Structure of Medical Care. New York, Atherton Press Inc. pp. 71-84, 1970.

[13] Y. H. Han, K. H. Kang, K. O. Park, I. S. Sohn,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ism,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6, No. 2. pp. 17-31, 2010.

[14] K. K. Cheong, Y. K. Kim, C. J. Moon, B. H. Cho, J. S. Kim, Sociology of Public Health. SNU Press, p. 209-283, 1995.

[15] D. G. Jin, S. Kam, Y. S. Kang, Y. K. Cho, et al.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doctors practicing in local Daegu city. Korea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Vol. 36, No. 2, pp. 153-162, 2003.

[16] J. Y. Kim, S. Kam, Y. S. Kang, et al.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western doctor and oriental doctors practicing at local clinic. Korean J Prev Med Public Health, Vol. 37, No. 1, pp. 44-50, 2004.

[17] A. S. Park, Effect on job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nursing officer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s dissertation, 2011.

[18] Y. S. Choi. Nursing professionalism,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focused on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5 pp. 2695-2702, 2014.

[19] J. I.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6053-6060, 2015.

[20] S. M. Cho, Professional job percepti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hairdressers practicing in beautician shop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octor's dissertation, 2005.

[21] H. O. Yang, H. Y. Kwak, A study on the professionalism of esthetician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Vol. 10, No. 6, pp. 1380-1388, 2009.

[22] L. Kang, H. S. Cho. Relationship of professional identity, emotional labor and depression in beauty business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7 pp. 3030-3038, 2011.

[23] H. R. Kim, I. H. Lee. An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for 'beautician(skin)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suggested by 'CS'on profession and practice uitabil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6 pp. 3512-3523, 2014.

[24] R. H. Kang, A study of the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1, pp. 71-88, 2006.

[25] O. T. Kim, S. H. Lee, Relations of professionality awareness to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among instructors in sport for all.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9, No. 6, pp. 473-483, 2010.

[26] WHO. The Asia-Pacific Perspective: Redefining Obesity and Its Treatment. Sydney, Australia, Health Communications Australia Pty Ltd, 2000.

[27] Pavalko RM. Sociology of occupations and professions. Itasca, IL: F.E. Peacock Publishers Inc, 1971.

[28] H. S. Kim, M. S. Kim, Present condition and task of specialized job qualification syste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2003.

[29] Hall RH. Professionalism and bureaucratization. Am Sociol Rev. Vol. 33, No. 1, pp. 92-104, 1968.

[30] Snizek WE. Hall's professionalism scale: An empirical reassessment. Am Socio Review, Vol. 37, No. 1, pp. 109-157, 1972.

[31] Y. S. Kang, S. Kam, M. H. Yeh, Interns' and residents'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Its effect

to their job satisfaction. Korean J Prev Med Public Health, Vol. 30, No. 1, pp. 209-228, 1997.

[32] T. S. Shin, Y. C. Cho, Professional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medical recorders engaged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258-4271, 2014.

[33] S. H. Shin, J. T. Lee, M. Kim, J. H. Kim, et al. Medical professionalism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physicians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23, No. 2, pp. 203-212, 2011.

신 은 숙(Shin, Eun Sook)

- 2004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7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병원관리, 의무기록
- E-Mail : tjdrhd@jbm.ac.kr